

16. 분재의 형태

가지와 줄기가 만들어내는 수목의 전체적인 외형, 외관을 ‘수형’이라 하며, 오랜 세월에 걸쳐 분재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수형이 확립되었습니다. 이 수형들은 엄밀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, 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바탕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이를 통해 분재 장인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, 자유로운 발상으로 분재를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수형을 무리하게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.

직간과 모양목

이 수형들은 둘 다 위로 뻗는 타입입니다. 전형적인 분재 형태로 소나뭇과 나무로 만든 분재에서 많이 쓰입니다. 직간은 곧게 위로 뻗은 줄기를 형성시켜줍니다. 직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, 전체 균형, 좌우 대칭, 통일감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반면 모양목에서는 줄기를 S 자 모양으로 위로 뻗게 하고, 수관을 향해 가늘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. 줄기가 무너를 그리듯 휘어져 분재 전체에 생동감을 주고, 식물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.

취류와 현애

이 두 가지 수형은 자연의 과혹한 일면을 받아들이는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. 취류 분재의 구부러지는 듯한 줄기는 강풍을 견뎌내는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. 현애 분재도 마찬가지로 깎아지른 절벽에 늘어뜨려진 긴장감이 있는 나무를 본뜬 것입니다. 이 두 가지 수형의 분재에 흔히 사용되는 나무로는 오엽송을 들 수 있습니다.

뿌리이음과 모아심기

뿌리이음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여러 줄기가 밑동에서 연결된 수형으로 각각의 줄기가 서로 얽혀있는 형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뿌리이음 수형으로 키울 수 있는 나무는 한정적이며, 그중 하나로 두송을 들 수 있습니다. 반면 모아심기는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여러 나무를 서로 모아 심는 기법으로 숲의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